

도전·혁신 통해 지역발전 이뤄내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과제이며, 과감한 혁신과 변화만이 진안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며 민선 8기를 시작한 전춘성 진안군수가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전 군수는 취임 2주년이 된 현재까지도 균형 철학을 변함없이 지키며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장기화 된 경기침체 속에서도 진안군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변화시켰고 지역 성장을 한층 높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행정 운영은 균형 전 분야 걸쳐 발전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지난 2주년에 걸친 전춘성 진안군수의 정책운영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용담호 활용방안 제시

전춘성 군수는 가장 먼저, 20여년간 용담호의 맑은 물을 지켜온 진안군민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앞장섰다.

진안군민 상당수가 용담호 광역상수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현실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호소한 결과, 환경부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 광역상수도 공급의 물꼬를 트게 했다. 환경부 사업 구간에서 제외된 지방사업 구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적기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용태세를 마쳤다.

용담댐 상류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 적용으로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2002년 환경부가 수변구역을 지정한 이래 20여 년 만에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가 돌입했으며,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조성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 등 용담댐 주변 지역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을 최초로 제시하여 용담호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시도하고 있다.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발대식



호계마을 광역상수도 통수식

용담호 등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산림·자연·문화자원들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생태건강치유도시 조성 기반 마련

2024년 1월 18일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다. 전북자치도 특별법 특례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특례, 산림 관련 특례를 발굴해 반영시켜 산림 자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2,627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지역권 산지약용식물 특화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4억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국가예산에 반영시켰으며, 지역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국가사업의 정당성을 요구한 끝에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채택된지 10여년 만에 2025년 개원을 예정으로 사업추진이 현실화했다.

생태건강치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진안고원 지방정원 △국립 자연휴양림 △국립 지역권 산림치유원 △지역권 산지 약용식물 특화 단지 조성 △생태건강권역 관광자원화 등 산림휴양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이다. 진안군은 전체면적의 76%(인 산림과 미야산,

▲원도심 기능 회복

전춘성 군수는 지역에 주민이 모여 살아야 상권이 형성되고 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누구나 진안군에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건설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읍 소재지 확장을 위해 주택단지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협약을 전북개발공사와 체결해 5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진안읍 월랑지구(면적 9만9,472㎡)에 600여 세대의 주택과 상업시설, 공원 등을 조성해 인구소멸 대응과 도심 기능을 회복할 방침이다.

이는 진안군으로 농촌유학·귀촌·귀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 월랑지구 인근에 위치한 화천지구에는 문화예술회관과 공원을 조성해 진안군을 대표하고 녹음이 가득한 도심 속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해 도심권 생활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의 포부

“군민 체감 정책 펼쳐나갈 것”

“지속 소통·행정력 집중”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2년은 우리 진안군의 발전 잠재력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올릴 차례인 만큼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더불어 “보통의 일상이 특별한 내일로 변화하는 진안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담호 활용방안 제시·생태건강치유도시 도약 기반 마련

원도심 기능 회복 노력·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돋보여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실현... 신뢰받는 행정 모습 보여줘

이 밖에도 녹색도시(Green City)라는 기지 아래 도시개발 방향과 어울려진 건축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자연 친화적인 건축 문화를 선도하는 진안군을 만들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돋보인다.

지역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육성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업직업대행 민간사업단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 활동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진안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경영 실습 임대농장 운영 등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으로 농가소득을 향상 시킬 계획이다.

특히, 고품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안군은 5개의 외국 지자체와 인력 교류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했다.

확보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은 관내 농업 현장 곳곳에 투입돼 농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었다.

이는 현지 면접을 통해 농업에 적합한 근로

자를 직접 모집과 선발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동숙소 운영 △업무 전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다.

홍삼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진안IC 인근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를 조성한다. 곳곳에 분산돼 있는 홍삼 생산·가공·유통·판매시설을 집산화·규모화를 통해서 홍삼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K-문화·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표 건강식품인 진안홍삼을 관광자원으로 내세워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삼집적화 단지가 건강식품을 유통·판매하는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할 방안을 구상중이다. 최근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는 웰니스(웰빙·행복·건강)관광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수발전소 유치에 도전한다. 양수발전소 건립은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양수발전소가 유치되면 투자자가 이루어지면 지역 내 소비를 증대시키고,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고용과 부대 산업 창출 등으로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진안군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수 발전소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 사업 추진으로 추가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

취임 당시,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누구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쳤다.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확대 △진안읍 어르신 및 취약계층 목욕비 지급단가 확대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대상자 확대 △보훈명예수당 전복자치도 내 최고액 지급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대상자 확대 등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공약에 반영하고 실현해 신뢰받는 행정을 몸소 보여줬다.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

전국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고착된 가운데 진안군이 시행 중인 각종 인구정책이 자리를 잡으며 인구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15개 기관·단체와 진안 애 주소 갖기 협약을 체결하여 인구늘리기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농촌유학형 유치 △농촌유학 가구의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면단위 지역 소규모 공공주택 건립 추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공급 추진 등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부 산후조리비용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 확대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확대 △출산 축하 꾸러미 △난임 시술비·진단비 지원 등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도 진안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통재 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안정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후보 사업에 반영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반영에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다. /진안=유태만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북은행이 함께하는

전북에듀페이 바우처카드

신청기간
4월 11일(목) ~ 11월 29일(금)

신청방법

비대면신청
전북에듀페이 앱, 앱에서 신청

대면신청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비대면 신청방법

1. 전북에듀페이 앱 접속
2. 전북에듀페이 및 바우처 지원비 신청

* 카드 및 바우처 지원비까지 신청해야 최종 완료됩니다.

전북에듀페이란?

전북도내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입학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교육과정 단계별 교육비를 지급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전북에듀페이 바우처카드란?

전북에듀페이 체크카드는 학습지원비와 진로지원비를 바우처로 지급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화카드로 2024년부터 3개년 동안 1개의 카드로 바우처 지원비 충전 및 이용 가능 (입학지원금 제외)

전북에듀페이 바우처카드 사용자(학생)의 이름으로 바우처 지원비 이용금액의 0.1% 가부를 전북은행에서 지원함.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100%가 기부활동 참여)

자세한 내용은 **전북에듀페이 앱**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전북에듀페이 전담 고객센터 (1588-2255)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063) 239 - 8045 ~ 8047

※ 대상을 가맹점 및 업종은 KB카드 가맹점 기준에 따릅니다.
 ※ 체크카드 대과 및도 관련 용역사상 본인 명의로된 체크카드를 대과 또는 영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2호에 정한 입금액의 대과에 해당되는 위법사안입니다.
 ※ 회사와 관련된 상계 사립의 전액출입금입출 및 고객센터(1588-447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상용생성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연이자율: 회원별 이용상용별 약정금리+최대3% 법정 최고금리(연20%)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가(연20%)에 연이자율 적용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할부 계약기간의 무이자 할부 금리
 ※ 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용상 상사발생이후 상용금리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일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계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필요이상으로 신용카드 발급받으시 경우 회원님의 개인신용평형, 이용현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다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형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용평형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일카드 카드납부 대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개인신용평형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 대과와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지정한 대과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신청일 제2024-다-1203(유지기간: 2025. 5. 27까지)